



중기중앙회, '나눔 페스타' 열고 소외계층 지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 개막식을 개최했다.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나눔 페스타는 중소기업계가 기부한 15만점 상당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을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행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사랑나눔 자매결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LGU+, 임직원과 발달장애 아동 가정 지원

LG유플러스는 임직원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천원의 사랑'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위기가정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을 맞아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약 500만원을 지원했다. (왼쪽부터)김정은 LG유플러스 AI서비스기획팀 선임과 고성원 밀알복지재단 모금사업본부장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LG유플러스



서부발전, 보건의로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서부발전은 지난 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열린 '2026년 이천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공공보건의로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의료 취약 지역인 태안·서산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파견하고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부발전



동아오츠카-낙동강생물자원관, 기능성 식품 개발

동아오츠카는 7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담수생물 자원 활용 및 실효성 있는 ESG 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담수생물 소재와 특기기술, 동아오츠카의 식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기능성 식품 소재 공동 연구와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오츠카

인사 ◆ **덕성여대** ▲ 입학처장 이호림 교수(바이오공학전공 교수) ▲ 자유전공학부장 박현용 교수(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부음 ▲ **황정렬** 씨 별세, **황필환**(자영업)-태한(자영업)-윤경씨 부친상, **장준수**(교보증권 디지털지원본부장)씨 부방상, **여의도성모장례식장 5호실**, 발인=9일 오전 8시, 02-3779-1526

'디올 뉴 아반떼' 해외 호평... "역대 가장 멋진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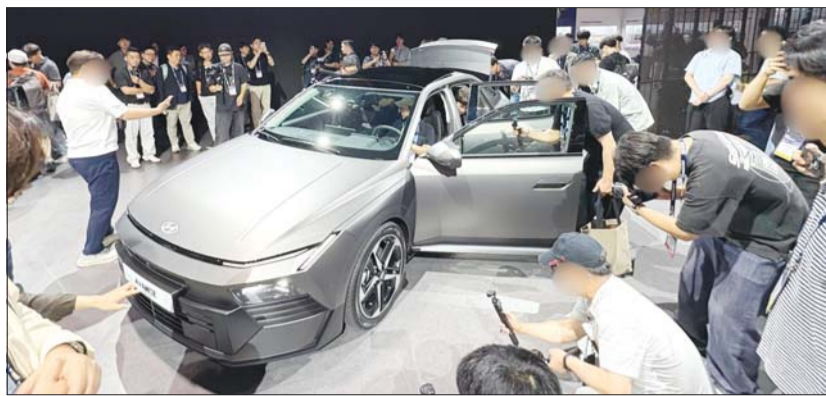
현대차, '부산모빌리티쇼'서 공개 기존 준중형 세단 틀 벗어난 디자인

현대자동차 준중형 대표 세단 아반떼가 지난 5일 폐막한 '2026 부산모빌리티쇼' 공개 이후 해외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디올 뉴 아반떼는 현대차의 8세대 모델로 날카롭고 미래 지향적인 외관과 차급을 뛰어넘는 실내 공간, 첨단 디지털 경험 등을 갖춰 공개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디올 뉴 아반떼의 디자인이 기존 준중형 세단의 틀에서 벗어나 한층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조형미를 구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카앤드라이버는 신형 아반떼를



지난달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서 디올 뉴 아반떼가 공개됐다. /차현정 기자

"SF 영화 스타일의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평가했고, 카스톱은 "슈퍼카를 연상케 하는 펜더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고 극찬했다.

또 다른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인 잘롭닉은 "역대 가장 멋진 콤팩트 세단 디

자인일지도 모른다"고 평했으며, 영국 오토 익스프레스는 "N 비전 74 콘셉트 못지않게 멋지게 등장했다"는 표현으로 신차의 등장을 전했다.

해외 매체는 공통적으로 신형 아반떼 전면부의 날카로운 램프 그래픽인

'H-엣지 라이팅', 입체적인 그릴과 볼륨감을 강조한 펜더, 낮고 넓은 차체 비례 등이 준중형 차급을 넘어서는 인상을 만든다고 분석했다.

디올 뉴 아반떼의 실내 디자인도 대형 디스플레이 중심의 간결한 레이아웃과 직관적인 조작 체계가 조화를 이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올 뉴 아반떼는 '아트 오브 스틸'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대담하고 정교한 조형미, 첨단 디지털 경험, 차급 이상의 상품성을 두루 갖춘 모델"이라며 "공개 직후부터 이어진 글로벌 반응은 이번 아반떼가 준중형 세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르노코리아, SDV 서비스 고도화

카카오모빌리티와 '맞손'

르노코리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르노코리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모빌리티 혁신과 고객 중심 차량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르노코리아 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구현을 위한 고정밀 지도 및 소프트웨어 기술,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및 커넥티비티(연결성)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이번 협약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고객 경험과 혁신 서비스를 함께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르노코리아의 차량 개발 노하우와 파트너사들의 역량을 집약해 '휴먼 퍼스트' 철학을 담은 혁신적인 서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왼쪽)과 카카오모빌리티 류공선 대표가 지난달 6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차세대 차량 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행사에서 카카오T 택시 기사 앱, 2열 승객 전용 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과 서비스를 그랑 플레오스에 구현한 차세대 모빌리티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고정밀 지도 기술과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 사례도 함께 전시하면서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했다. /양성운 기자

귀뚜라미, 제품·서비스 경쟁력 '1위'

국가고객만족도 가스보일러 부문

귀뚜라미보일러가 고객이 직접 체감한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귀뚜라미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가스보일러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NCSI 종합점수 79점으로 가스보일러 업계 최고점을 획득했다.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불평률, 충성도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고객들에게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귀뚜라미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혁신에 힘쓰고 있다.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게

아'를 통해 보일러 구매와 설치부터 정기 점검과 A/S까지 이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고객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등 비대면 환경의 서비스 강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가정용 보일러 온라인 구매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제품 성능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국가고객만족도 1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품과 서비스 전반의 고객 경험을 지속 고도화해 60년 국민보일러 브랜드로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 AI연구원, '엑사원' 글로벌 경쟁력 입증

국제학회 'ICML 2026' 참가

LG AI연구원이 글로벌 인공지능(AI) 학회에서 산업 현장에 적용 중인 '엑사원'의 성과를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을 알렸다. 신소재 개발부터 금융, 데이터 구축까지 AI 활용 범위를 넓히며 산업 AI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LG는 오는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마신러닝-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학회 'ICML(국제머신러닝학회) 2026'에 참가해 연구 성과와 함께 LG의 AI '엑사원'의 산업 현장 혁신 사례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ICML은 마신러닝-인공지능 연구의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 3대 AI 학회로, 글로벌 AI 학계와 산업계가 주목하는 최대 규모 행사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학회에서 신소재부터 금융, 데이터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엑사원이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신소재 개발 AI 플랫폼 '엑사원 디스커버리'의 실시간 데모와 함께, AI로 발굴해 제품 상용화를 준비 중인

탈모 관리 신소재 '탐시딜'과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액침 냉각용 소재' 실물을 공개했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신소재·신약 연구를 돕는 'AI 과학자'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이다. 탐시딜은 LG 생활건강이 LG AI연구원과 함께 42만 개가 넘는 후보 물질 가운데 AI가 하루 만에 찾아낸 신소재다. 스테로이드 유래 성분 없이 탈모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여 세계모발학회에서 성과를 발표했고, 현재 제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액침 냉각용 소재는 GS칼텍스와 LG AI연구원이 공동 개발했다. 양사는 앞으로 신소재 발굴 범위를 함께 넓혀갈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은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 이어 한국 시장으로 확장 중인 금융 특화 AI 에이전트 '엑사원 BI'를 시연했다.

마지막으로 LG AI연구원은 AI 데이터 공장 플랫폼인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로 고품질 데이터를 AI로 생성하고 전문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차현정 기자

효성, 'AI융합연구원' 신설로 AX 속도

맹성현 교수, 부사장으로 영입 적용·융합형 연구개발 추진

효성은 전사적인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기 위해 'AI융합연구원'을 신설하고 초대 연구원장으로 맹성현 카이스트 명예교수(사진)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AI융합연구원은 중공업·섬유·화학 등 효성의 기존 제조사업에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적용·융합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단순한 업무 효율화나 비용 절감용 도구가 아니라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등 그룹 주력 계열사의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미래 신사업 설계·실행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리드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성이 축적해 온 제조 전문성에 AI를 결합해 스마트 팩토리를 완



성도 높게 고도화하고, 제조 현장 전반의 혁신 문화를 조성해 글로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맹 원장은 시라큐스 대학,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출신으로 의미 기반 정보검색,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처리, 언어 모델링 분야를 30여 년간 선도해 온 AI기술 전문가다. 그는 지난 8개월간 효성의 AI담당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사의 디지털 전환 방향성 자문과 임직원들의 AI역량 향상을 위한 특강들을 진행해 왔다.

효성은 향후 AX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 인력은 물론, 산업 현장의 전문성과 AI 활용 역량을 겸비한 차세대 인재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